

얀바루: 희귀한 생물 다양성의 환경

얀바루는 오키나와 본섬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름은 전통적으로 ‘산과 숲’을 의미하는 한자가 쓰입니다. 얀바루의 내륙부는 낮지만 험한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약 80%는 녹음이 울창한 아열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얀바루 정도의 규모의 산림은 그 북위 27도 부근(리비아 사막, 멕시코 북부, 인도 북서부와 같은 위도)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구로시오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는 상록활엽수림이 번성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더해져 산악 지대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이 형성됩니다.

남북으로 32km, 동서로 12km에 펼쳐진 얀바루는 오키나와 섬의 다른 섬들과 비교해 비교적 미개발지입니다. 그다지 넓지 않지만 얀바루에는 놀랄 만큼 다양한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얀바루 지역은 일본 총면적의 겨우 0.1%에 불과하지만 일본의 조류종의 1/2과 재래종인 개구리종의 1/4 이 이곳에 서식합니다. 오랜 옛날에 류큐 열도가 아시아 대륙 및 일본 본토에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인 얀바루쿠이나(일본 유일의 날지 못하는 새)와 오키나와딱따구리, 얀바루앞장다리풍뎅이 등 많은 고유종이 독자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얀바루의 울창한 숲에는 높이 솟은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 희귀한 양치식물, 섬세한 난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해양종과 식물종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면서 해안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얀바루는 보전 활동에 있어 중요한 보호구역이자 이곳의 독특한 생태계 탐구에 흥미를 가지는 자연 애호가에게는 낙원입니다.